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8호 【루계 제23050호】 주체99(2010)년 4월 8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중친선연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부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3일과 4일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주재 중국신임대사의 부임에 즈음하여 마련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고 전하였다.

통신은 연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류홍재신임특명전권대사가 축배사를 한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해방일보》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미국의 AP통신과 일본의 지지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빼루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3월 13일과 14일 빼루에서 강연회와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빼루인민녀성동맹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쎄싸르 까스뜨로 로메로는 강연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군을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투철한 사상론자로서 사상이 없는 총대는 한갖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도 백방으로 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 김정일령도자의 확고부동한 군건설전략이다.

군인들은 그 어떤 전투임무도 수행할수 있게 육체적으로,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모든 군종, 병종이 높은 타격력과 기동력을 가진 현대적무기로 장비되였다.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추고 공격에도 방어에도 다 준비된 필승의 강군이 바로 오늘의 조선인민군이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의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군대와 인민이 한가정, 친형제처럼 서로 위해주고 도와줄뿐아니라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것이 바로 오늘날 조선사회의 참모습이다. 지휘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이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필승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길이 떨쳐갈것이다.

빼루인민녀성동맹에서 진행된 친선모임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들이 온갖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는데 대해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하께

위원장각하

저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의장단회의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2010년 3월 27일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 의장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각하께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언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각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미국과 남조선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외세와 결탁하여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을 폭로규탄하기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또한 각하께서 마련하신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 김일성주석께서 력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계기들에 즈음하여 효률적인 련대성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2012년에 전체 조선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게 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커다란 관심속에 평가하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원장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의장단회의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 프 르

2010년 3월 27일 빠 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의장단회의
프랑스에서 진행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의장단회의가 3월 27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인 6.15공동선언지지 국제법률가협회 서기장 로베르 샤르뱅, 벨지끄 왈롱지역리사회 명예위원장 윌리 뷰르종,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 앙드레 오브리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 기타 프랑스, 영국,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벨지끄, 뽀르뚜갈, 알제리 등 여러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 로베르 샤르뱅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국제련락위원회가 지난 기간 세계적범위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광범히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미국과 그에 편승한 서방나라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화된 조건에 맞게 국제련락위원회는 세계 진보적력량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활동하였다고 말하였다.

6면으로 계속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주의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증송투쟁에로 추동하는 정치사상공세 강화
철도성 당위원회에서

대고조전선들에 더 많은 화물을 더 빨리 실어나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철도성 당위원회에서 증송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성당위원회에서는 화물수송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현실적조건에 맞게 성안의 모든 국, 처들에서 수송계획을 빈틈없이 세우도록 하는 한편 사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수송조직과 지휘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특히 당창건 65돐까지 올해 화물수송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이 수송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을 증송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성당책임일군들과 성, 국, 분국의 당, 행정일군들이 렬차들에 올라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승무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과 인민경제 주요전선들에서 요구되는 물동을 수송해주어 대고조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얼마전 수만의 영농물동수송이 긴급하게 제기되였을 때에도 40여명의 일군들이 직접 화차에 올라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여 상차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물동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였다.

신성천역, 북창역을 비롯한 상하차역들과 기관차, 화차수리현장, 중요역들에도 당일군들이 달려나가 힘있는 정치선동으로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고있다.

철도수송을 근본적으로 늘이자면 차량부속품생산부터 추켜세워야 한다는것을 자각한 성당위원회에서는 라흥철도공장에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도와주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룡성베아링공장을 비롯한 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기관차, 화차들의 생산수리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현존기관차, 화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성에서는 수송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물동은 물론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필요한 원료, 연료수송과 시기마다 제기되는 긴급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성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 철도국, 분국을 비롯한 아래당조직들에서도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평양철도국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중요상하차역들에 내려보내여 배차조직과 운행지휘를 현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기관차, 화차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게 하고있다.

개천철도국 당위원회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철도국의 전반적인 철길구간들에서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으며 특히 탄광들의 갱목수송에 힘을 넣고있다.

순천철도분국, 회령철도분국, 평양조차장객화차대, 청진기관차대, 정주기관차대를 비롯한 성아래 모든 단위 당조직들에서도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앙양이 이룩되도록 하고있다.

성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지금 성에서는 1.4분기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4월에 들어와서도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마감단계공사 힘있게 추진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쳐 마감단계의 공사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완공단계에 들어선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전소의 준공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자들과 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에서는 모든 건설자들이 발전소를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한다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발전기실건설을 맡은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의 전투원들은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날마다 맡은 작업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도안의 송배전부문의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변압기들의 설치와 전기선늘이기를 비롯한 작업들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사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기조립작업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전자공업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공정들에 대한 콤퓨터조종체계를 완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 뜨거운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완공의 날이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가봉, 감비아, 세네갈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가봉공화국, 감비아공화국, 세네갈공화국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7일 특별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최창식보건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왔다.

비행장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봉훈 보건성 부상과 류홍재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황해남도 농촌들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그루감자심기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늘이고 정보당 소출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앞그루감자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해온 옹진군 읍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일군들에게 적지선정, 종자와 포전준비 등 감자심기를 잘할수 있는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그들모두가 농장, 작업반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연백벌안의 농촌들에서 적지를 바로 정하고 감자심기를 힘있게 다그쳤다. 이 사업의 앞장에는 정촌협동농장과 지난 여러해동안 논앞그루로 감자를 심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연안군안의 협동농장들이 서있다. 군안의 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종자싹틔우기와 거름생산 등 앞그루감자 심을 준비를 미리 해놓았다가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였다.

청정농장 제3작업반과 청단협동농장, 조옥희, 금성협동농장을 비롯한 청단군과 배천군안의 농장원들은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감자를 정성껏 심었다.

재령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그루감자심기를 힘있게 내밀었다.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을 농장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올해 앞그루감자면적을 훨씬 늘이고 종자들을 넉넉히 마련해놓은데 기초하여 감자심기에 힘을 넣었다. 신천군 새길협동농장과 새날농장, 재령군 삼지강, 김제원협동농장을 비롯한 재령벌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감자종자들을 준비해놓고 싹틔우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한데 따라 감자심기를 다그쳤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열의밑에 포전마다에 질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고 감자를 정성껏 심었다.

도안의 다른 농촌들에서도 알알이 골라 싹틔운 감자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심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광포오리공장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광포오리공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흥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더 많은 오리고기를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올해 오리고기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례년에 없이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확고한 과학적주견과 신심을 가지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그들은 새로운 단백먹이와 첨가제들을 생산할수 있는 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먹이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오리 마리당 무게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봉대종금직장과 선덕직장에서는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종자오리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고있다. 특히 봉대종금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단백먹이서식장과 배설물발효먹이장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많은 먹이를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먹이원단위소비기준을 훨씬 낮추고있다.

알깨우기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화안을 받아들여 알깨우기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알깨우기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청년직장과 호남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리들이 잘 자랄수 있게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다.

다호직장에서도 현대적으로 새로 일떠세운 오리우리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위대한 향도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65년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명맥으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김일성조선의 영웅적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힘있게 부르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당을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백두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어린 호소를 새길수록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이 혁명의 명맥과 더불어 선군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는 긍지로 천만의 가슴 한없이 격동된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곧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고 실현되게 된다.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는 혁명전통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더없이 귀중한 밑천이다.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서 내 조국은 주체의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되고 오직 영광의 한길로만 줄기차게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정녕 우리 당이 걸어온 65성상, 그것은 백두의 혁명전통계승에 민족만대의 륭성번영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로 세계를 깨우치며 불멸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투쟁하여 백전백승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영광의 년대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입니다.》

주체89(2000)년 3월, 희세의 선군령장을 맞이한 백두밀림은 끝없는 환희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여러날에 걸쳐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다.

걸음걸음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력사의 증견자로,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후손만대에 빛내여가실 확고한 결심을 담으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어가신 불멸의 그 자욱자욱,

백두산밀영과 사자봉밀영,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베개봉숙영지, 삼지연과 무포숙영지, 대홍단, 신사동…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상고초와 사선의 고비들을 수없이 헤치시며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를 뜨겁게 더듬으시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신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할 그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귀틀집 한채, 우등불자리 하나, 구호나무 한대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후손만대에 전하고 수령님의 투쟁업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은 우리의 국보이고 재산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백두의 아아한 산발들을 타고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깊은 현지지도에서 인류는 새 세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더욱 옹호고수하고 빛내여갈 천출명장의 신념과 의지를 절감했으며 세계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억센 뿌리로, 피줄기로 하여 승승장구할 위대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았다.

백두산!

우리 인민은 태양민족의 영예와 존엄과 잇닿은 소중한 모든것을 성스러운 조종의 산과 결부하여 부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탄에 빠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십성상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면서 마련하신 백두의 혁명전통, 이는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키는 주체의 자양분이며 우리 당과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영원히 승리를 떨칠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강철의 담력과 배짱,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낳은 혁명의 만년재부!

백두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을 과감히 헤쳐오신 민족의 태양,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 20년의 력사가 그대로 함축되여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전통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위대한 력사로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가는 나라는 없다.

위대한 전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개척과 함께 창시된 백두의 혁명전통의 불패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거연히 일떠세웠다.

참으로 백두의 혁명전통에 일관되여있는 사상과 정신은 혁명의 머나먼 길에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며 영웅적위훈과 기적, 백승을 안아오게 한 원동력이 아니였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선군시대의 위대한 재부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찬란한 현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린다.

반만년민족사에 류례없는 륭성번영의 시대를 장엄하게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오늘의 이 경이적인 현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혁명의 재부들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뜻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일찌기 아침해 빛나는 나라 조선은 백두산과 함께 영원할것이라고 선언하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가 세월의 언덕넘어 천만의 심장을 쿵쿵 울리고있다.

조국을 알자면 무엇보다 우리 혁명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 어찌 천만년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백두산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어놓으신 력사의 그길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전통밖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신념의 길이였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원히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완성하는 성스러운 로정임을 선언한 위대한 충정의 길이였다.

백두산지구를 자주 찾으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발자취가 추억의 파도를 몰아온다.

삼복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7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신 후 현지에서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혁명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혁명사적을 기본으로 하여 꾸려야 한다!

그이께서는 혁명전적지건설의 근본원칙을 이렇게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진군방침과 보천보전투에 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과 지휘를 보여주는 혁명사적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면서 여기에 다른 자료들을 잘 복종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그 빛나는 령도,

사연깊은 지도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찌기 백두산지구에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그무렵,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지도를 가지고다니시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빠짐없이 표시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동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없는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유서깊은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정중히 모시고 사적물들도 원상대로 보존하며 사적비와 기념탑, 조각군상들을 만들어세울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자신의 온넋을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불태우시며 혁명전통은 오직 대를 이어가면서 순결하게 고수해야 한다고, 우리 당은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100% 계승하고 100% 실현하여 수령님께서 념원하시는대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고결한 뜻은 온 나라를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시키는 빛나는 현실을 안아왔다.

왕재산혁명사적지, 삼지연혁명전적지, 보천보혁명전적지, 대홍단혁명전적지, 연사지구 혁명전적지,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훌륭히 꾸려졌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백두의 혁명전통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에 병이 드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당이 병들게 되고 당이 병들면 혁명을 망치게 된다.

혁명전통에 대한 이런 심오한 사상과 투철한 계승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로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이 땅에 세차게 나래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백두의 혁명전통의 철저한 구현으로 된다.

절세의 위인의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구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구호관철의 벅찬 투쟁속에서 내 조국은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아온 위성보유국의 긍지, 주체철생산성과며 최첨단돌파의 자랑인 CNC기술, 계속 늘어나는 사회주의선경 등은 다 백두밀림에서 타오른 주체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고귀한 결정체들이 아니던가.

지난해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 여러차례 나오시여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을 벌리신 업적이 깃들어있는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이신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우리 당과 인민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는 성스러운 길에서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찬란히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농장벌에 새기신 거룩한 자욱

농장원의 집에도 들리시여

지금으로부터 40년전 1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천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에 새로 일떠선 아담한 문화주택마을을 돌아보실 때였다.

어느 한 집을 찾으시여 집구경을 왔다고 하시며 방안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구는 몇명이나 되는가, 된장과 간장은 떨구지 않고 먹는가, 집은 춥지 않은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신 후 허리를 굽히시여 손수 방바닥의 여기저기를 짚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만하면 방안이 더운 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집주인에게 가정살림을 알뜰히 해나가자면 식량도 절약하고 집안팎도 깨끗하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마당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불빛이 흐르는 마을전경을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문화주택을 더 많이 지어 마을을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일을 끝마친 농민들이 집에 들어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던 저녁무렵이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마을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 계시는줄 모르고있었다.

산골농사도 기계로

1970년대초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그날 향산군 천수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가에 차를 세우시고 마을전경을 둘러보시다가 길옆의 남새밭에 들어서시여 무우 하나를 뽑아드시고 무게를 가늠해보신 후 가을갈이를 한 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흙덩어리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토심이 얕다보니 보습날에 뒤집힌 흙에 밑층의 모래가 드러나있었다.

그 고장으로 말하면 원래부터 부침땅이 거의나 비탈밭이 아니면 뙈기논이여서 알곡소출이 다른데보다 떨어졌으며 농사를 잘 짓지 못하다나니 축산도 시원치 못한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농장의 일군들과 뜨락또르운전수, 작업반장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하루에 소로 밭을 갈면 얼마나 갈수 있으며 달구지로 거름을 내면 몇번이나 나를수 있는가, 뜨락또르로는 하루에 밭을 얼마나 갈수 있는가, 자동차로는 거름을 몇번 실어나를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골농사에서도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포전도 더 정리하고 길도 더 닦아 농사일을 기계화하여야 농민들의 힘든 일도 덜어주고 알곡수확고도 높일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강냉이품종을 보시면서도

주체78(1989)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그해 농사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현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알알이 여문 강냉이 한이삭을 몸소 드시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다가 농장일군에게 이 종자를 몇정보나 심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강냉이는 키가 작은 품종의 강냉이였다.

농장일군이 그 강냉이종자를 심은 정형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당 포기수와 정보당 수확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가장 리상적인 평당 포기수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확실히 키낮은 품종이 포기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농장일군은 키가 작고 이삭이 큰 강냉이품종을 심은것이 천백번 옳았다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키가 큰 품종은 마음에 없다고, 키가 작은 품종의 종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청산협동농장에서 키가 작은 강냉이종자를 심어 수확고를 높인것은 대단하다고, 강냉이는 키가 작고 평당 포기수를 많이 늘여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품종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은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을 심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본사기자 리 성 국

◇ 축복받은 세쌍둥이군인들 ◇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은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쳐가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자욱으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그길에서 꽃펴난 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무적의 용맹과 필승의 기상을 안겨주는 위훈의 활력소이며 김일성민족이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할 귀중한 혁명실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수십명의 세쌍둥이군인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게 된 세쌍둥이군인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억제하지 못하며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바로 이 애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신 아이들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세쌍둥이군인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오르고 이 세상 만복을 독차지하고 자라온 나날들이 돌이켜져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진정 세쌍둥이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얼마나 극진하고 자애로왔던가.

세쌍둥이가 태여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태여날 때면 그리도 기쁨에 겨우시여 이 땅에 고고성을 울린 때로부터 친부모도 주지 못할 고귀한 은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던 세쌍둥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도 참으로 각별하였다.

세쌍둥이군인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비행기에 실려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형제들도 있었고 사랑의 소생기안에서 두번다시 태여난 행운아들도 있었다.

세쌍둥이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안겨주시고 갖가지 고급식료품들과 훌륭한 옷가지들도 거듭 보내주시며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안아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떠나 혁명의 군복을 입은 이들의 끝끝한 오늘의 모습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잊을수 없는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우리 세쌍둥이들이 이제는 다 자라서 일당백군인이 되였다고,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섰으니 얼마나 장한가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아도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잘 알수 있다고 긍지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세쌍둥이군인들의 가슴가슴은 혁명의 총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맹세로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런 군인들을 한명한명 일별하시며 어느 부대에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는가, 군사복무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고향의 부모들은 잘 있는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그들의 장래를 축복해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그이께서는 세쌍둥이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쌍둥이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잠시라도 더 안겨있고싶은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군인들모두에게 대를 이어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순간 장내는 격정의 파도로 더더욱 설레이였다.

무한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는 세쌍둥이군인들의 눈가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 또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군인들중 한명이 사정에 의하여 그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는 그에게도 꼭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부모의 품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자식들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세쌍둥이군인들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군무생활을 잘하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가시던 걸음을 다시 돌리시여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는 감동적인 시각이였다.

세쌍둥이군인들이 받아안은 선군령장의 축복!

정녕 이는 총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병사들을 친자식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육친적사랑의 고귀한 정화이며 선군태양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혁명의 미더운 주력군들로 자라는 장군님의 병사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행운중의 행운이다.

강 철 남

혁명설화

동강회의대표들의 탄복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실성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주체25(1936)년 4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동강밀영은 련이어 찾아오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대표들로 하여 여간 흥성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며칠후에 있게 될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력사적인 회합때문이였다.

군정간부들과 대표들은 동강밀영에 도착하여 안내와 숙식조건, 회의장소 등을 목격하고 일치하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마련하신 회합이 과시 다르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시선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로 향하였다.

며칠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일내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는 회의를 진행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보초를 서는 한 대원에게 앞으로 보초도 잘 서고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회의장준비도 잘 도와주자고 이르시였다.

어느날 유격대원들이 회의장에 들여놓을 책걸상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각지에서 찾아오는 대표들의 안내와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맡아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마른 강대를 켜서 거칠게 만든 의자를 띄여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숙연한 안색으로 의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대사를 의논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들을 어떻게 잘 다듬지도 않은 이런 통나무의자에 앉히겠습니까. 한번 쓰고 버릴 의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국해방의 력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회의장에 놓을 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과 의자를 성의껏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대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뉘우치고 김정숙동지의 말씀대로 의자들을 흠잡을데 없이 미끈하게 만들어 회의장에 들여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의장준비에 관심을 돌리시는 속에서도 밀영에 찾아온 대표들이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에게 대접할 콩나물을 계단식으로 길러놓으시고 녀대원들과 함께 밀영주변의 산들에서 더덕이나 도라지도 캐시였으며 산나물을 뜯어다 김치까지 먹음직스럽게 담가놓으시였다.

회의준비기간은 물론 회의가 진행되는 전기간 회의참가자들을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 기울이신 지성은 정녕 끝이 없었다.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의 창건이 선포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온 밀영이 커다란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던 그 시각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깨끗한 충실성과 량심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한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그 숭고한 모범은 오늘도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김 철 혁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며 믿음직한 기술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기관사전문학교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크나큰 믿음

질좋은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환희로운 현실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지난해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동안 일을 많이 하였다고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에게 앞으로 비날론중간제품을 가지고 갖가지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모든 공정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면 화학공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멀지 않아 강성대국의 대문에로 들어서게 될 벅찬 래일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업소의 전경을 이윽토록 정깊게 바라보시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제는 비날론생산공정을 살리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활력을 되찾아주시려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오늘의 성과를 마련하여주시고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정해주시며 새로운 비약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전투과업을 받아안고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기업소의 한 일군에게 생산공정들을 언제까지면 다 꾸릴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비날론옷감을 더 많이 보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긴 일군은 그이께 어떻게 하나 올해안으로 다 꾸리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꼭 해내리라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비날론생산공정을 올해안으로 끝내자면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난해에 강선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는데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그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장훈을 불렀으니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빅장훈을 불러야 한다고, 서해지구에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를 치며 내달리고 동해지구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소리를 치며 내달려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비날론로동계급에 대한 그이의 이렇듯 철석같은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으로 만난을 헤치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끝끝내 더 좋은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게 하는 력사의 기적을 안아온것이다.

강성대국에로 나래쳐오르는 우리 조국의 억센 기상인양 폭포쳐 쏟아지는 비날론솜,

조국청사에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 아로새겨진 비날론대경사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드세차게 솟구칠 때 내 조국땅우에 인민의 모든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림 정 호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긍지를 안고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불멸의 선군령도업적교양에 큰 힘을

증산군당위원회에서

우리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증산군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세워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면 군당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기점을 옳게 설정하고 사전준비에 품을 넣어 교양사업을 한번 진행하여도 대중과 교감이 잘되도록 참신한 방법으로 하고있는것이다.

지난 3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군당위원회가 진행한 선군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진행과정을 보기로 하자.

—한번의 교양사업을 위해 열백공수의 품을!

이것은 군당위원회가 교양사업에서 늘 중시하는 원칙이다.

하기에 군당위원회는 올해의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도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무본벌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군당위원회 비서 문명철동무는 부서일군들과 함께 무본협동농장에 내려갔다. 교양사업일정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여러번 밟으면서 뜻깊은 현지지도기념일에 진행해야 할 사업을 하나하나 무르익혀나갔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여러차례 집체적협의도 하고 시간별로 따져가며 당일날에 진행해야 할 교양사업일정을 구체적으로 짰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에 무본협동농장에 대한 참관사업, 해설모임은 물론 현지에서 단위별로 덕성연구발표모임과 선동연설, 기동예술선동대 공연을 정황에 맞게 조직진행하기로 토의결정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이날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더욱 깊이 체득시키는 교양과정으로, 힘있는 경제선동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는 출연자와의 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리였다.

이런 충분한 준비밑에 군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이날 선전선동사업을 참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였다.

이른아침부터 군안의 공장, 기업소, 기관, 가두인민반들에서 자동차와 각종 운반기재들에 거름을 싣고 무본협동농장 포전으로 향하였다. 방송선전차에서는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빨찌산식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과 새로운 대고조소식을 전하며 대중을 고무추동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행렬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표식비에 이르자 해설모임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증산벌 토지정리를 아주 잘하였다고,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이 아득히 펼쳐졌는데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에도 시원하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면서 증산군인민들이 잘 살수 있게 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은정깊은 사랑을 부어주신 그날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취를 뜨겁게 더듬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다.

풍부한 감정과 능란한 화술로 무본리출판물보급원 김봉옥동무가 격동적으로 벌린 선동연설은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이윽고 드넓은 무본벌에서는 농장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무본벌에 달려나온 군안의 인민들은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토지정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구호를 웨치며 논두렁짓기작업에 진입하여 놀라운 실적을 내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참신한 교양사업은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건설장에 울려퍼진 군민의 노래

강계백화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하루봉사활동이 끝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종업원 여럿이 약속이나 한듯 지배인방에 들어섰다.

《지배인동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백화점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때로부터 1돐이 됩니다.》

《그날을 맞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본때있게 하자는겁니다.》

저저마다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자고 지배인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원군사업이 자기 사업과 생활의 떨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여 일을 하고 사색을 해도 인민군대를 위한 일부터 첫자리에 놓는 이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원군사업은 좀 특색있게 해볼수 없을가 하고 궁리하던 지배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고무가 될 원호물자를 더 많이 마련하자는 종업원도 있었고 위문편지를 안고가 후방의 새 소식도 알려주자는 종업원도 있었다.

서로끔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는 그들을 바라보는 지배인 리금희동무의 마음은 마냥 후더워났다.

얼마나 훌륭한 종업원들인가.

누가 시킨 사람도 없었다. 또 생활이 남들보다 유족해서도 아니였다.

그저 인민군대를 성의껏 원호하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실천으로 받드는 길임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원군길에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과 진정을 스스로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강하고 내 조국이 더욱 굳건해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지배인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쩐지 지성이 부족한것만 같았다.

인민군대를 위해 우리가 더 할수 있는 일은 없을가.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그는 종업원들에게 나직이 말했다.

《우리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하는것이 어떼요. 악기도 타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술소품공연! 지배인동지, 그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찬성해나섰다.

다음날부터 봉사활동이 끝난 후면 종업원들 누구라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들 모여앉아 자신들의 재능을 합쳐가며 군인들이 좋아하는 곡목도 선정하고 악기와 노래련습으로 밤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품을 들여 예술소품공연준비를 끝내고 성의껏 원호물자도 마련한 그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갔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결의안고 매일매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원호물자를 안겨준 그들은 작업의 쉴참에 예술소품공연무대를 펼쳐놓아 군인건설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김은희, 홍승옥동무들이 부른 노래가 군인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새겨주었다면 리용심, 리순임동무들이 출연한 제창이야기는 건설장에 혁명적열정과 량만을 더해주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군인건설자들이 너도나도 무대로 뛰여나왔다. 그리고 이들과 어깨겯고 노래 《군민아리랑》,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목청껏 불렀다.

뒤이어 한 군인건설자가 다지는 맹세가 건설장을 울렸다.

《인민의 당부, 조국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공연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을 틀어잡기에는 너무나 충분했다.

군민이 함께 부른 노래,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보다 큰 혁신에로 떠밀어줄 때

정평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정평기초식품공장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면서 질좋은 식료품들을 쨍쨍 생산하고있다.

이런 성과는 높은 사업실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려는 이곳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이 당의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생산공정을 개건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지난 몇해동안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전기를 쨍쨍 생산하고있는 조건에서 생산공정을 개건하면 군안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초급당비서 정홍철동무와 지배인 리미화동무는 책임기사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질좋은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책임기사 고석남동무는 자신이 착상한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내놓으면서도 거기에 드는 많은 량의 자재때문에 주저하고있었다.

이때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은 그의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것은 그 기술혁신안이야말로 식료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발견이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는 한점의 불꽃이기때문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도 공장에 나와 그 소중한 싹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기술자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군에서는 기술개건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책임기사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평양과 강계를 비롯한 여러 기초식품공장들에 보내여 시야를 넓혀주고 앞선 기술도 배워오도록 하였다.

공사가 벌어지는 나날 초급당비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들이 기술개건의 앞장에 서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사업실적으로 받들어가려는 불타는 열망을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나가면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훌륭하게 일떠세울수 있었다. 여기서 귀중한 경험을 얻은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된장, 간장, 기름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전기보이라에 의거한 된장생산공정을 훌륭하게 완성하고 콤퓨터로 온습도를 조종할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체계를 완성해놓을수 있었으며 간장, 기름생산공정을 개건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할수 있었다.

기초식품공장에서 타오른 기술혁신의 불길은 군안의 다른 공장들에도 급속히 파급되여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그러니 한점의 불꽃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로 타오른 셈이였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통하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실적으로 받들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떠밀어줄 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송창윤

민족적자부심을 심어주며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적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에 고무된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수 필

철령의 철쭉향기

봄이라고는 하지만 꽃구경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기상전문가들도 올봄처럼 철이 늦게 드는 해는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백화만발한 화원에 서있는듯 한 심정이다.

아마도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녀교원에게서 받은 충격때문인것 같다.

《제가슴에 가득차있는 철쭉꽃향기가 철따라 풍기는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말로 나의 심금을 울린 녀교원은 원산의 어느 한 대학을 졸업하고 고성군의 최전연지구의 학교로 진출해간 김영애동무였다.

어떻게 정든 집이 있는 원산을 떠나 산골마을학교로 자원해갈수 있었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최전연지구의 학교로 진출할것을 결심한 곳은 철령이였고 철령의 지지않는 철쭉이 될것을 결심한것은 군사복무시절이라고, 철령을 잊는다면 어떻게 선군시대 청춘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

아직은 20대 중엽, 인생의 초엽에 살고있는 그가 무척 돋보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한다. 순결함과 열정, 행복에 대해 말할 때면 의례히 꽃을 들기 일쑤이다.

그래서 누구나 꽃을 사랑한다.

하다면 강원도의 잊지 못할 녀교원, 아니 그만이 아닌 선군시대 청춘들이 철령의 철쭉을 가슴속에 안고사는것이 과연 그때문만일가.

철령과 더불어 값높은 인생을 꽃피워가는 고결한 모습들이 떠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철령을 가꾸는데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도로관리원이 된 철령청년도로소대원들과 추지령청년도로소대원들, 철령너머의 산골마을학교와 병원들로 자원해간 대학, 전문학교졸업생들…

꿈많은 그들이였다. 포부도 남달리 높았던 청춘들이였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값높은 인생을 지향한 그들에게 있어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곳은 철령이였고 철령과 잇닿은 산발들이였다.

학창시절 선군령도의 상징인 철령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의 력사에 대하여 배울 때 마음은 벌써 철령에 올랐고 인생의 좌표를 스스로 정한 그들이였다.

아직은 인생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알아야 할것이 더 많았던 그때 다른것은 다 몰랐어도 철령이 있어 정든 집처마밑에 행복이 꽃피고 배움의 종소리 높다는것을 뼈에 새긴 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백과사전에서도 찾을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새겨져있었으니 철령은 곧 자기들의 운명이고 영원한 삶이라는것이였다.

그러니 철령의 철쭉을 어찌 꽃피는 봄날에만 찾으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철령과 더불어 참된 인생의 좌표를 찾은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충정이 다름아닌 철령의 철쭉이 아니던가.

그렇다. 철령의 철쭉, 그것은 선군시대 청춘들의 마음속에 피여웃는 꽃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당의 선군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청춘들의 맹세처럼 계절을 모르고 변함이 없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이 나라 청춘들의 마음속에 혁명의 붉은 꽃이 영원한 향기를 뿌리기에 내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인상깊이 새겨준 평범한 녀교원의 모습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선군시대 식료가공공업에서의 일대 혁명

각 도에 《삼일포》식 특산물종합가공기지들이 일떠섰다

당의 령도밑에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일어난 새로운 식료가공공업혁명의 봉화가 온 나라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무진장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특산식료품가공의 공업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리있게 실현한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식료공장들이 각 도들에 희한하게 일떠서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선군시대 식료가공공업은 새로운 발전면모를 자랑떨치게 되였다.

인민생활을 강성대국수준에로 비약시킬수 있게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화와 과학화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삼일포》식 식료가공공업이 창설된것은 나라의 경공업발전에서 일대 혁명으로 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우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현대적인 우리 식 경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인민들에게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도들에서는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건설하는것을 현시기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피여난 불꽃이 온 나라에 거세찬 봉화로 타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4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식료가공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삼일포특산물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주체적인 식료가공공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안아온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부터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건설이 도처에서 힘있게 전개되여 선군시대 《삼일포》식 식료가공공업혁명, 새로운 경공업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어났다.

당이 안겨준 《삼일포》의 불씨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식료공업부문과 각 도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된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이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공장위치와 건설규모, 생산능력과 제품의 가지수를 실정에 맞게 확정하고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를 반영한 최상급의 종합식료공장들을 건설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종합식료가공기지들은 먹는문제를 우리 인민의 문명수준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의 리상을 구현한 새로운 식료가공공업의 참신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선군시대 전변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특색있게 건설된 황해북도의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은 지방에 흔한 농산물들과 산나물, 산열매들을 기본원료로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강냉이국수, 고구마떡 등 주식물들과 말린 농토산물류, 남새절임류를 비롯한 부식물들과 같이 사람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생산할수 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 일떠선 평안남도 백송종합식료공장에는 국수류, 고기류, 차류 등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정들이 꾸려져 증산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고있다.

공장에서는 도와 평성시 주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될 맛좋고 보기에도 흐뭇하며 건강에도 유익한 갖가지 제품들이 나오고있다.

량강도 혜산시에 건설된 청봉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감자국수, 들쭉단목을 비롯하여 북부고산지대의 정취를 짙게 풍기는 가공품들이 도내 인민들과 혁명의 성지를 찾는 답사자들에게 안겨지고있다.

자강도의 장자산종합식료공장, 함경북도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 평안북도의 압록강종합식료공장에서는 도시주민들이 지방의 천연향취를 마음껏 맛볼수 있게 하는 특산품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공업적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도록 한 당의 은정속에 공장들에서 대대적으로 생산되는 오이, 마늘, 들깨잎, 참취, 더덕장아찌 등이 독특하고 생신한 맛으로 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강원도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 함경남도의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황해남도의 수양산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든 식품들가운데는 동서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리용한 식혜류와 회류들이 눈길을 끌고있다.

쑥떡, 느릅국수, 대추정과, 안변곶감, 잣과자, 미나리영양가루, 고추씨기름, 누룽지차 등 이름만 들어도 민족의 향기가 풍기는 식료가공품들은 이곳 도들의 특산품으로 되고있다.

각 도 종합식료공장들에서는 도토리술, 마가목술, 찔광이술, 참나무버섯술, 백화술과 같이 지방의 원료원천을 리용한 특색있는 주류들도 생산하고있다.

공장들의 모든 생산공정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비되여있으며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마른것과 젖은것의 포장, 진공포장을 원만히 실현함으로써 식료품의 위생안전성보장과 보관, 공급에서 질적인 개선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도 훌륭히 실현되고 높은 기술문화적인 생산환경이 갖추어진것은 식료가공품들을 문명한 조선민족의 리상에 맞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으로 완성해낼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장들이 도달한 현대화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종합식료가공기지들에 대한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원자재보장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모든 제품을 100% 나라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는것을 우리 식 식료가공공업발전의 기초로 내세운 당의 구상을 받들고 각 도들에서는 산열매, 산나물과 농토산물, 수산물 등 지방의 원료들을 계절에 따라 군중적으로 확보하고있다.

포장재와 용기, 상표도 통일적으로 생산보장하는 체계가 확립되여 식료가공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

선군조국이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솟구쳐오르는 오늘 식료가공공업에서 일어난 혁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한 식생활을 보장해주려는 조선로동당 정책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각 도 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식료품생산공정의 CNC화, 무균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입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가슴벅찬 새 화폭을 펼치기 위한 《삼일포》의 불길은 온 나라에 더더욱 세차게 타번져 머지않아 모든 시, 군들에도 현대적인 종합식료가공기지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넋이 맥맥히 살아숨쉬고 산좋고 물맑은 내 조국의 향취가 흘러넘치는 식료가공기지들은 세계가 부러워할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며 당의 대해같은 은덕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황해북도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외경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의 종합지령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의 과일가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7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보통강구역 직맹위원장 최경학, 보통강신발공장 로동자 문경화, 평양철도건설려단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17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당, 전군, 전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고 천만군민을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시여 지난해를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해로 전변시켜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올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사상과 뜻과 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선군혁명동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공업과 농업,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모두가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른아침이였다. 조국동무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서둘러 작업반휴게실을 나섰다. 생산능력확장 및 현대화공사가 활발히 벌어지는 요즘 공장의 어느 일터에서나 제관공들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어떻게 하나 오늘은 소성로개조작업을 끝내야 하겠는데…)

4월6일직장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는 손에 든 용접가위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반들반들해진 손잡이를 쓰다듬느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렀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그의 손에 용접가위가 처음으로 쥐여진 때가 33년전이였다. 만년필과 바꾸어쥔 용접가위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말하였다.

《용접가위와 함께 변함없는 인생길을 걷기 바란다.》

그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로병의 당부로 가슴속에 새겨안던 그날이 어제런듯싶었다.

그때부터 조국동무는 어느 하루도 용접가위를 놓지 않았다. 오랜 제관공들을 찾아다니며 용접의 묘리와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지새운 밤은 얼마였던가.

자기의 첫 창조물인 자그마한 제관품을 두고 대견해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옛 작업반장아바이의 웃음넘친 모습도 눈앞에 얼른거린다.

조국동무는 용접불꽃을 쉬임없이 날리였다. 8월23일직장, 5월25일직장, 4월6일직장을 비롯하여 내화물생산기지의 이르는 곳마다에 제작설치된 수많은 제관품들에 비낀 용접불꽃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가 수십년세월을 하루같이 날려온 용접불꽃은 공장을 젊어지게 하였고 어머니조국의 힘찬 전진을 말없이 떠밀었다. 그 나날 그는 작업반장으로 자라났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지니였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였다. …

소성로개조현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설계도면을 펼쳐들고 덩지큰 제관품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지배인의 모습도 보였고 용접면이며 용접봉을 들고 작업준비를 서두르는 작업반원들의 얼굴도 눈에 띄였다.

조국동무는 용접가위에 용접봉을 끼우며 작업반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중으로 끝장을 보자구.》

《작업반장동무가 결심해서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몇달동안 긴장하게 소성로개조전투를 벌려온 작업반원들이다. 작업반장의 방조밑에 자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덕에 소재절단과 용접을 비롯한 제관작업에서 막히는데가 없어 《공장의 보배》로 불리우는 혁신자들이다.

이윽고 용접불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련속 용접봉을 갈아대는 작업반원들의 이마에는 땀이 내돋았다. 조국동무를 비롯한 제관공들의 열정의 분출인듯 용접불꽃이 쉬임없이 튀여올랐다.

용접불꽃, 그것은 조국동무가 제일 사랑하는 《꽃》이다. 비록 순간에 피였다지는 자그마한 불꽃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열렬한 지향과 애국의 숨결이 어려있기에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안는것이다.

소성로개조전투를 끝낸 조국동무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용접불꽃이 안겨주는 로동의 보람, 생의 희열이였다.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용접의 불보라를 더욱 세차게 날려갈 결심이 비껴있는 미소였다.

그는 용접가위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였다.

(용접불꽃과 함께 한생을 빛내이리라!)

본사기자 김승표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리

신의주시의 각계층 인민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신의주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있습니다.》

신의주우편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6년전부터 매일 이른아침과 저녁이면 신의주시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을 정성다해 관리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지난 기간 성의껏 마련한 수십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관리도구들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신의주시 채하중학교 교장 리명옥동무도 교원, 학생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처음 교단에 서던 수십년전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는것으로 시작된 리명옥동무의 일과는 오늘까지 변함이 없다. 그는 지난 기간 학생들과 함께 수많은 꽃관목들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에 정히 심고 가꾸었으며 소백수의 맑은 물을 떠다 수령님의 동상 주변잔디에 부어주었다. 또한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기재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 나날 리명옥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신의주시 역전동 김룡영로인은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매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으며 신의주시 본부동 황숙희녀성과 신의주시 개혁동 김옥란녀성도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특히 신의주시 근화동에서 사는 정대영녀성은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6년간 뜨거운 마음을 담아 많은 관리도구들과 기재들을 마련하였으며 매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신의주농업대학 학생인 추광일동무는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동생 추은주와 함께 매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잘하고있으며 신의주의학대학과 신의주의학전문학교 학생들도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진행하고있다.

신의주제1중학교 학생인 리송심과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학생인 리송경자매, 신의주제1중학교 학생인 정효진과 신의주시 채하소학교 학생인 정경남매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이밖에도 신의주시안의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신성한 도덕의리로 여기고 이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로동속에 꽃피는 열정과 랑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안땅의 하루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아침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되는가싶다.

로동의 보람과 기쁨에 넘쳐 기업소정문을 메우다싶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 그들의 투쟁성과를 고무하듯 늘어선 속보판들이며 붉은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 생활의 랑만이 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는 기업소의 자랑일뿐아니라 온 대안땅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곳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자기들의 공연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린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맨 앞장에선 기업소로동계급과 뜻과 숨결을 같이하며 대고조진군의 날과 날을 불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이어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특색있는 예술선동활동으로 대형발전설비가공을 맡은 김명학, 김철호동무를 비롯한 발전설비1가공직장 혁신자들의 투쟁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기업소정문으로 들어서는 혁신자들의 밝은 모습과 그들과 말없는 경쟁을 걸며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약속된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씩씩한 모습들!

그러니 어찌 출근길이 즐겁고 보람차지 않으랴.

대형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으로 들끓는 생산현장 역시 투쟁과 혁신으로 보람찬 열정의 《샘터》, 랑만의 《무대》이다.

예술선동은 물론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생산자들이 일터의 쉴참에 함께 벌리는 오락회는 또 얼마나 랑만에 넘친것인가.

오늘 대안의 로동계급은 누구나 말한다.

항일유격대식, 화선식예술선동의 북소리가 높아 창조와 혁신, 비약의 동음이 그처럼 우렁찬것이라고.

그 동음과 더불어 대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기계설비들의 CNC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고조진군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기록영화

《위대한 헌신 (변이 난 해 2009년)》 상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기록영화 《위대한 헌신 (변이 난 해 2009년)》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되였다.

당과 국가간부들,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기록영화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주체98(2009)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전환의 해로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을 수록하고있다.

영화에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수백개 단위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전당, 전군, 전민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력사적자료들이 편집되여있다.

대소한의 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리방선 인민군초소들로부터 희천발전소건설장과 북방의 대규모공업기지들, 수많은 경공업공장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과 협동농장들에로 강행군길을 이으시며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과 여러 부문에서 CNC화실현, 류례없는 축포야회 등 지난해의 사변들을 되새겨주는 영화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강성대국승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언제나 선군혁명총진군대오의 진두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올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해나갈 철석의 의지와 열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경기대회는 평양과 청진, 원산, 사리원 등지에서 축구, 롱구, 배구, 력기, 레스링, 유술, 지상호케이, 륙상, 체조를 비롯한 근 40개 종목으로 나뉘여 진행된다.

개막식이 7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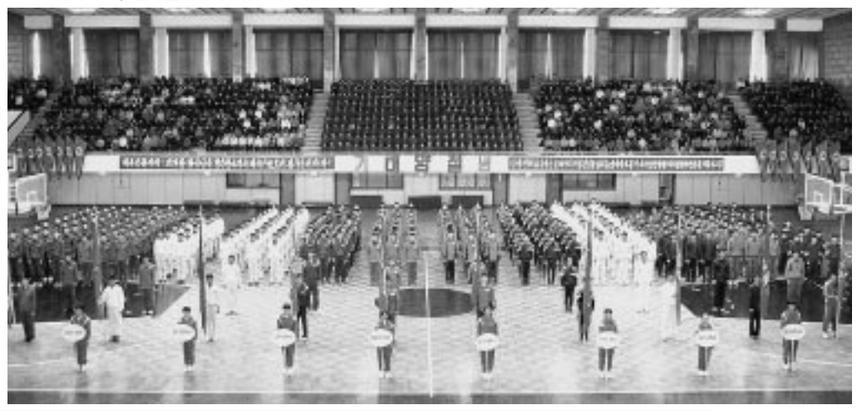
그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체육단 모든 선수, 감독들이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이번 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경기대회기발이 게양되였다.

4.25체육단 선수 문철미, 평양체육단 단장 변정호가 토론하였다.

이어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4.25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은 7일 의례방문하여온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학효비공사참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보건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부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주조 스웨리예왕국 특명전권대사와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봉훈 보건성 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하여 인구의 도시화와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제시하고 공동으로 해결방도를 모색하며 사회적관심을 높일것을 호소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지역의 생태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인구의 도시화와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고 그 성과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싸베쉬와 푸리 세계보건기구대표가 연설하였다.

행사에서는 인구의 도시화와 사람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록화물이 방영되고 보건일군들의 건강태권도집체출연이 있었다.

이날 평성시에서도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진행되였다.

평안남도와 시의 관계부문 일군들, 보건일군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광호 평성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싸베쉬와 푸리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은 다음 학생들의 위생선전대공연을 보았다.

《세계보건의 날》은 전국각지에서도 운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들이 즐겨찾는 봉사기지

보통강상점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보통강상점이 날을 따라 흥성이고있다.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봉사기지에 넘치는 수도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전하고싶어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은백색의 외벽에 《보통강상점》이라는 간판이 두드러지게 안겨오는 건물의 겉모양부터 마음이 끌려 상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던 우리는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상점문을 나서는 손님들과 마주치게 되였다.

우리는 사과향기가 물씬 풍기는 과일구럭을 손에 든 한 녀성에게 상점에 와본 인상을 물었다. 그러자 대동강구역에 사는 림향이라는 그 녀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나서는 마지막걸음까지 받아안는 감격이 크고 또 상점이 너무도 희한하여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멋쟁이상점에 대한 감탄, 사들고 나오는 과일이며 고기가공품들에 대한 감탄, 례절바르고 살뜰한 봉사자들에 대한 감탄…

찬탄과 찬탄으로 이어지는 손님들의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상점안으로 걸음을 재촉케 하였다.

회전문을 통과하여 상점안에 들어선 우리는 손님들의 말처럼 첫걸음에서부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대리석바닥이며 무늬거울로 단장된 눈부신 벽들, 아름다운 원형띠장식을 한 특색있는 형식의 밝은 천정…

그야말로 건축미와 꾸림새 하나하나가 다 조형예술적이고 현대적미감이 짙은 멋들어진 상점이였다.

우리는 손님들과 함께 1층매대에 다가섰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발자취가 어린 1층에서는 과일봉사가 한창이였다.

봉사복을 단정히 입고 상점안에 들어서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고 안내하면서 손님들이 알고싶어하는 상품들과 봉사공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봉사자들의 다정한 목소리는 상점안의 분위기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었다.

빛갈곱고 향기로운 과일들을 골라 구럭에 담으며 기쁨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우리와 같은 심정인듯 손님들의 기뻐하는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못 떼던 상점지배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날마다 손님들에게 맛좋은 과일이며 고기제품들을 봉사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보통강상점에 깃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과연 다 알고있을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군 한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다.

지배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지난해 8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통강상점을 찾아주시여 상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다시금 가슴뜨겁게 떠올랐다.

그날 상점을 돌아보시고 기뻐하시며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도 들려오는듯하였다.

우리는 2층매대로 걸음을 옮기였다.

상점의 2층도 갖가지 고기제품들과 장아찌 등 여러가지 식료품을 봉사받는 인민들로 흥성이고있었다. 그들의 밝은 모습으로 하여 상점안이 더욱 밝아진듯 하였다.

《우리 상점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렬장과 매대들을 꽉 채운 각종 고기와 가공품들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돼지공장을 비롯한 고기생산기지들을 꾸려놓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배인의 그 말을 들으며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서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고기생산기지들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바치신 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눈보라강행군길, 삼복철강행군길이 없었다면,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우리 행복이 꽃펴날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러가지 고기가공제품들을 사가지고 상점문을 나서는 락랑구역 승리1동의 한 로인을 만나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맛좋은 과일과 식료품들을 사들고 기뻐하고있을 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더 좋은 래일을 위하여 현지지도길에 계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 길을 따르며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을 위한 좋은 일이 날마다 늘어만 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이 훌륭한 제도를 위해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상점에서 우리는 인민들이 하는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비껴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상업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보통강상점은 참으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상점,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는 인민의 상점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담보하는 선군정치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6. 15통일시대의 지난 10년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고 받들 때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륭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민족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정치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 당의 선군령도따라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억세게 새겨안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선군정치는 온 겨레에게 민족적자존심과 긍지, 영예감을 높여주는 원천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겨레에게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감을 안겨준다.

선군시대인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곧 선군정치의 위대성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드센 배짱, 특출한 정치실력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세계가 경탄속에 바라보는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이며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은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목격하고있는 해내외의 온 겨레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세련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으로서의 한없는 민족적자존심과 긍지감을 새겨안고있다.

선군이자 자주이고 존엄이다.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관점,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방해책동을 능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 자주적대를 세워주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으로 온갖 역경을 타개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고 갖은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핵문제를 걸고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류례없이 악랄한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과 봉쇄, 《제재》책동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결코 통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선군을 그대로 투쟁방식, 생활신조로 삼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만난을 이겨내면서 주체혁명위업,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승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을 온 세계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애국애족의 정치가 민족성원들에게 주는 감화력은 비상히 크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지켜지고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며 조국통일과 무궁한 번영도 담보된다는 확신이 억척같이 뿌리내리였다. 남조선의 민심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신뢰하고 지지옹호하는데로 흐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끝없이 동경하면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열렬히 지지하며 따르고있다.

선군정치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통일애국의 기치이다.

위대한 선군정치에 기초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조국통일령도, 애국애족적인 도량과 포옹력에 의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이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의 대결의 장벽에 파렬구가 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의 기운이 고조되였다.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6. 15통일시대는 지난 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 한차례의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이 놀라운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위력하고 리상적인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따르는것이 외세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함께 행복하게 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임을 심장으로 절감한 남조선인민들이다. 그들의 이 신념은 6. 15통일시대와 더불어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변함없이 적대시하면서 어리석게도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날뛰고있다. 지난 3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발광적으로 벌려놓았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들의 악랄한 북침전쟁정책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 어떤 천만대적의 도전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수 있는 무적의 군력을 마련한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6. 15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존엄이며 영예이다. 선군옹호의 길에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이 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선군의 기치따라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안전과 조국통일이 확고히 담보된다는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엄 일 규

죄지은자들의 가소로운 망동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문제에서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고있다. 며칠전 《통일부》는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남측기업의 《재산권보장》이니, 《위반》이니 하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 한편 《3대조건》이니 뭐니 하고 부당한 조건을 집요하게 내대면서 그 해결이 없이는 관광재개에 응할수 없다고 계속 뻗대고있다. 이것은 관광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있는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움으로써 남조선각계의 비난여론을 잠재워보려는 파렴치한 망동이다.

그것은 지은 죄로 하여 속이 켕겨난자들의 행악질이다.

남조선당국이 관광관련 남측기업들의 《재산권》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보수당국이 금강산에서 일어난 우발적사건을 코에 걸고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가로막아 남측기업들에 입힌 물질적손실은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미 집권전부터 관광사업에 나서는 남측기업들을 아니꼽게 여기며 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 등에 대해 떠들며 저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통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킨것도 그 한고리인것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관광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손실을 보고 극도의 경영위기에 처한 남측기업들의 처량한 모습을 쓴외보듯 하면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런자들이 이제 와서 남측기업들의 《재산권》에 관심이 있는듯이 생색을 내고있으니 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위반》이니 뭐니 하는것도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우리는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녘인민들의 소망을 헤아려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이지만 용단을 내려 관광길을 열어주었다. 더우기 남조선 현 당국이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은 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대범하게 관광재개와 관련한 여러가지 난문제들을 다 풀어주었다. 이것은 그 어떤 계약이나 규범, 판례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이런 애국애족적인 성실한 자세와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너무도 판이하다. 관광재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놓고보더라도 남측은 우리가 이미 충분한 대답과 최고의 담보를 준 《3대조건》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지면서 관광재개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극도로 오만무례하게 처신하였으며 지어 다음번 접촉날자도 정하지 않고 달아뺐다. 말이 난김에 《3대조건》문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우리가 담보를 준 이상 무엇이 더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였다고 하겠는가. 위반이라면 이런것이 실제로 위반이고 규범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망동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어떤 궤변과 술책으로써도 금강산, 개성관광사업을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고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모면할수 없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개성지구관광문제를 북남대결야망실현의 통락물로 만들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다. 그들이 대결만을 추구하며 부당한 립장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관광사업은 어차피 끝장날수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이제 관광길이 다시 열리는가 아니면 영영 막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송 영 석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장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여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한 죄악의 력사를 남긴 일본이 아직도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며 독도강탈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그런데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제창하며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있으며 심지어 굴욕적태도로 일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정권》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친일《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제호전광들 전쟁연습실시를 공표

6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제호전광들이 4월 중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미군훈련장에서 남조선괴뢰군과의 대규모화력연습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그 무슨 《공조능력점검》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제2사단과 함께 괴뢰군의 제26사단, 륙군항공단 그리고 기계화부대들과 포병, 공병 등 각 병종부대들, 화력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대결책동 박살내고 금강산관광길 열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일 《대결책동 박살내고 금강산관광길 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협력사업의 《옥동자》, 6. 15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추동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이 그 무슨 《3대조건》만을 외워대며 아직까지 금강산관광길을 차단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것은 현 《정권》의 본심이 어떻게 하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드러내보이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독재《정권》이 남녘겨레모두가 가고싶어하는 금강산관광길을 가로막고 민족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을 훼방하는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자연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평화와 통일의 봄은 민중, 민족의 힘이 없이는 결코 올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전체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힘을 합쳐 《한나라당》과 독재《정권》을 반드시 심판할것을 호소하였다.

용납 못할 군국주의부활책동

남조선의 《아시아평화와 력사교육련대》가 3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한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력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계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로 된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일본이 다음해에 모든 중학교교과서들에도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할것을 예고한 상태라고 하면서 더이상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련대하여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 규탄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의 투쟁이 일본각지에서 련일 벌어지고있다.

3월 28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 교또시가》를 비롯한 일본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민족차별, 외국인배척을 반대하자!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을 용서하지 않는다! 3. 28집회》가 교또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 9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언급하고 1세동포들이 지켜온 민족교육을 목숨걸고 지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학교배제는 민족차별》이라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또한 일조우호 효고현민의 회를 비롯한 23개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3월 29일 고베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4. 24교육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조선동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위해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떨쳐나설것을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정부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한편 이바라기현 겐낭지역의 시의회 의원들이 3월 31일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문부과학상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 ⁘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오사까부본부와 오사까부어머니련락회의 공동주최로 3월 30일 오사까에서 《조선학교지원요구! 오사까어머니들의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고련옥 녀성동맹 오사까부본부 위원장의 발언과 류영혜 오사까부어머니련락회 회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들은 조선학교어머니회 성원들을 비롯한 각지의 학부모들, 녀성동맹 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기자회견, 거리선전, 집회를 비롯한 투쟁을 련일 전개해왔다고 말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시는 재일동포들이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포자녀들의 미래, 민족교육의 고수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운동에 모든 어머니들이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조선학교학부모대표들과 일본의 시민단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단체대표들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행위는 명백히 평등원칙에 관한 법위반일뿐아니라 민족교육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오사까부어머니련락회의 명의로 일본수상과 문부과학상앞으로 보낸 요청문이 랑독되였다.

본사기자

부정부패행위 폭로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이 3월 30일 론평을 발표하여 남조선교육계에서 부정부패행위가 더욱 만연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론평은 얼마전 학교교장 157명이 《수학려행》, 《수련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긁어모아 부정축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학교교장들의 부정부패행위때문에 민중들의 분노와 학부모들의 실망이 극도에 달하였는데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사건이 발생한것은 교육분야에서의 부정부패가 일부 교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최근 《정부》가 교육계에서 만연되고있는 부정부패행위를 외면하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그 무슨 《교장권한강화》를 떠들어대며 부패한 교장들을 비호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로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부정부패조장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산시당 학생위원회가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대학생들속에서 괴뢰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당국이 대학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99%가 대학등록금, 청년실업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당국이 대학생문제해결을 계속 외면한다면 청년학생들이 이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보건제도를 통해 본 판이한 두 사회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가장 인민적인 무상치료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진단비, 치료비, 약값이라는 말조차 모르며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벗들이 너도나도 격찬하였듯이 인간사랑의 전설들이 수많이 꽃피여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지난해 《로동신문》 2월 24일부에는 전신 45%, 36%의 3도화상을 입은 두명의 환자를 살려낸 해주시제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기사가 실렸다.

병원의료집단은 분과 초를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50여일간의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 끝끝내 환자들을 소생시켜 그들이 다시 초소에 설수 있게 하였다.

치료과정에 원장과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300여명의 병원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환자들에게 바쳤으며 시안의 수백명의 근로자들도 자기의 피부를 바쳤다.

한 환자에게는 7. 3L의 피가, 다른 환자에게는 3. 2L의 피가 수혈되였을뿐아니라 두 환자에게 도합 2 700㎠의 피부가 이식되였으며 액수를 가늠할수 없는 막대한 의약품과 갖가지 영양회복제들이 무상으로 돌려졌다.

이런 일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열려진 의사협의회만 해도 무려 80여차에 달한다고 한다.

환자들은 작업도중에 뜻하지 않게 화상을 당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적보건제도가 있기에 기적적으로 구원되였다.

그러나 의술이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고 인간의 생명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빚어지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어느 한 현에서는 한 임신부가 돈이 없는탓에 10개의 병원들에서 접수를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임신부는 11번째 병원으로 가던중 끝내 길거리에서 류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자기의 목숨도 건질수 없었다.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도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픔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로 하여 남조선은 세상사람들로부터 《질병속에 기침하는 나라》라는 조롱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종합검진을 한번 받는데 400US$의 검진비가 있어야 하며 입원비는 하루평균 300US$에 달하고있다.

로인들의 경우 간단히 치료를 받자고 해도 월평균 200US$나 내야 하는데 이 돈을 마련할수 없어 근 100만명의 로인들이 자식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질병과 빈곤, 고독속에서 여생을 마치고있다.

얼마전 한 외국신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의 어느 자본주의나라에서는 해마다 의사들의 치료상오유로 약 1만 7 000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고있다고 한다.

환자들이 많은 돈을 물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고있지만 오진하거나 초보적인 손위생도 지키지 않아 감염을 초래하며 약물치료에서 오유를 발생하는 등 의사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를 이루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가 가져다주는 필연적현실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체 의료집단이 달라붙어 피와 살을 바치며 소생시키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인민적보건제도와 돈이 없으면 해산도 제대로 할수 없고 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병원을 찾아갈수조차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보건실태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참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근로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활짝 꽃피는 락원이라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는 사람들의 운명이 돈에 의해 롱락되는 지옥같은 세상이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가슴 불태우는 참관자들 —안악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 명 일 찍음

앞날이 없는 대학졸업생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람찬 창조적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모습에도 국가와 사회제도의 앞날이 비끼게 된다.

봄날의 이맘때이면 부풀어오르는 희망과 포부로 하여 가슴설레이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대학과정을 마치고 새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우리의 대학졸업생들이다.

당의 은정속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배우며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의 가슴속에는 고마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식으로 빛내일 일념이 가득차있다.

대학기간에 다진 풍부한 지식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로 용약 달려가 어머니조국을 빛내이는 위훈을 창조하려는것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불타는 지향이고 리상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활력에 넘친 청춘들,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는 이런 청년들의 끝끝한 모습을 볼수 있는것은 아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썩고 병든 남조선의 현실을 보자.

황금만능의 사회인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두고 돈의 노예를 양성하는 망조가 든 교육이라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고만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졸업을 눈앞에 둔 전체 남조선대학생들가운데서 무려 70%이상이 막대한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빚을 진 리유는 재학기간 나날이 높아만지는 등록금때문이다.

하기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갈망하며 일자리마저 얻지 못한 청년들은 삶을 비관하여 자살도 서슴지 않고있다.

요행 일자리를 잡으면 대학기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쓰며 일하고있고 무엇을 하나 발명해도 일자리를 떼우지 않기 위해 하고있다.

이처럼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어찌 사회적인간을 키워내는 신성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인 남조선의 교육을 두고 노예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절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황금과 권력에 의하여 청춘도 미래도 시들고 병들어가는 자본주의사회에 침을 뱉으며 남조선의 한 주민은 몇해전 어느 한 신문에 이렇게 토로하였다.

—내가 다시 태여난다면 이 땅은 죽어도 피하고싶다. 이 세상 한끝의 황무지에서 홀로 태여나 미개인으로 흙바닥을 파먹으면 파먹었지 이 땅에서는 안살겠다.

이것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신랄한 규탄이다.

우리는 대학졸업생들의 모습에 비낀 두 제도의 판이한 현실을 두고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창창한 미래가 있고 근로하는 인민의 참된 행복이 꽃펴나는 삶의 요람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계급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신의주우편국에서 종업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계급교양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우편국에서는 계급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복수결의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계급적자각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얼마전에는 공훈우편통신원인 김묘숙동무가 해방전 지주놈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어린시절의 피눈물나는 생활과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던 때의 일들을 종업원들에게 들려주면서 총대가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는 진리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업원들은 선군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김 희 찬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

오늘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우리 인민처럼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긍지높은 인민은 없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사람들모두가 행복에 넘쳐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사회,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남녘겨레들의 가슴마다에 끝없는 동경심과 부러움을 한껏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전문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자기의 글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찬양하여 이렇게 썼다.

《이북의 사회제도는 말그대로 근로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국가사회발전을 추동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이북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북과 같이 민중의 권리와 리익이 담보된 사회제도는 없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어느 한 시국강연회에 참가하여 격동된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를 둘러보면 이북에 세워진 정권처럼 근로민중모두가 주인인 정권, 그렇게 참다운 정권은 찾아볼수 없다. 근로민중 누구나가 다 평등하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뿐아니라 민중이 주인인 민중중심의 복지사회를 펼쳐가는 정권, 이것이 바로 이북땅에 거연히 솟은 진정한 민중의 정권이다.》

그런가하면 한 재야인사는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평등한 복락을 누리는 이북은 전설속의 무릉도원에도 비기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따뜻한 봄날의 화원처럼 인간의 리상이 꽃피고 향기가 넘치는 이북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이 선망하는 태양조국이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격정에 넘친 이들의 이야기에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우리 공화국을 마음의 기둥으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는 남녘민심의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다.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구나 진정한 삶의 보람을 누려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우리 공화국의 이 빛나는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고 만복을 안아오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불멸의 로정은 곧 인민을 위한 헌신의 대장정이다. 로선과 정책을 하나 세워도 그 앞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이 땅우에는 오랜 세월 인류가 바라오던 리상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락원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여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지구상에 정치의 력사가 흘러 수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아무리 력사를 더듬어보고 세계를 둘러보아도 진정한 민중중시, 민심반영의 정치를 실현한 곳은 오직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에서만이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민중중시의 정치가 참답게 실현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민거백승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행하시기에 그이를 따르는 이북의 민심은 절대적이다. 민중중시가 정치철리로 되고있는 이북이야말로 21세기의 정치모범, 인류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민중의 참세상이다.》

광주의 한 로동자는 동료들에게 《이북에서는 로동자, 농민이 대의원으로 추천되고 선거권도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북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사회이고 인민적인 사회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이 다 민중을 하늘로 믿으시고 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일령수님의 민중사랑의 정치의 결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차이없이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이북이야말로 정말 신기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며 인간세상중 가장 으뜸가는 인민의 세상이다.》라고 자기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이북바로알기회의 한 회원은 《찾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민중에 대한 사랑의 최고정화이다. 장군님께서는 정치의 중심에 민중을 놓으시고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민중의 념원에 기초하여 세우시고 민중의 리익과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마음쓰신다. 평범한 민중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생각도 국정에 담으시는분이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분께서 민중과 나누시는 대화는 곧 이북의 정책과 로선이 되여 발표되고 나라의 혜택과 시책이 되여 민중에게 베풀어진다. 참으로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상락원인 이북은 고금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이며 우리 이남민중의 리상향이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지금 남녘겨레들의 마음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펴나는 공화국북반부에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남조선의 자유기고가 황정길은 민심탐방기 《북을 향해 흐르는 민심의 대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운명을 맡길수 있는 곳으로 민심이 쏠리는것은 력사의 순리이다. 바다를 향해 사품쳐흐르는 대하마냥 북으로 달리는 남녘민심의 대하,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이북같은 세상에서 하루빨리 살고싶다.》, 《안기자,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어서 가자, 민중의 락원인 북반부에로!》

이것이 오늘 절세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자부심에 한껏 넘친 남녘겨레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강렬한 지향이고 념원이다.

고 혁 철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심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학생은 주체사상은 만민에게 광명을 안겨준 태양의 빛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사상사의 그 어느 철학사조도 주체사상처럼 인간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었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람위주의 주체사상이야말로 민중의 운명개척의 원리와 방도를 가장 옳바르게 밝혀주는 시대의 등불이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문경환은 인터네트잡지 《정세동향》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74년 2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내용을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체계로 해설하면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시여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종교인 리준일은 《김정일령도자님에 의해 주체사상은 더욱 풍부화되였을뿐아니라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김정일령도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한 한 지식인은 《조선로동당이 오늘의 복잡다단하고 엄혹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영웅적기상을 떨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고 피력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은 《자주시대의 홰불인 주체사상을 전사회에 구현하시고 선군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신분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청년회 회장 정혁은 《과학이며 진리인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고 향도리념이다.》고 주장하였고 새 력사연구회 정진철은 《21세기를 이끌 인류의 사상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를 널리 연구, 보급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에서 《주체사상대토론회》가 진행된 사실들은 주체사상을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2.16동지회, 남도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축하모임, 연구토론회 등의 장소들에서는 《주체사상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의 필승의 기치》, 《주체사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의 전진운동에서 절대적영향력을 미치게 될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주체사상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기치로 빛날것이다.》라는 심장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또한 《주체사상총서》, 《유물론과 주체사상》, 《주체의 진리》, 《민족의 앞날은 북에 있다》, 《려명의 등불》 등의 도서들이 발행되여 각계층 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널리 탐독되는 가운데 인터네트들에도 주체사상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이 끊임없이 실렸다.

본사기자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의 《전국운수산업로동조합》(운수로조) 위원장이 3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로총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당국의 로조말살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지금 운수로조는 공무원로조, 《전교조》, 건설로조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운수로조에 화물련대가 가입되여있다는 리유만으로 당국이 로조를 없애버리려고 폭압에 광분하고있을뿐아니라 운수부문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요구마저 외면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당국이 각종 법들을 개악하고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세력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단체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오는 4월 민주화쟁취, 로조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벌리고 이를 통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파괴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그는 당국이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려 하고있지만 로조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고 필승의 각오가 있는 한 반드시 이길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한국청년련대》가 3월 24일 론평을 발표하여 청년들의 로조활동을 가로막는 피뢰당국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로동부》가 청년로조설립신고에 대해 《정치활동이 주되는 목적》이라느니, 《구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였다.》느니 하며 반대해나섰다고 밝혔다.

청년로조는 청년들의 실업, 로동권문제의 해결과 사회의 민주화,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기본활동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게 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고 하면서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못살겠다, 뭉쳐보자!》고 웨치며 모였겠는가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로조설립을 가로막음으로써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청년로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지하며 각계 국민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련대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분별한 파쑈적폭거

—남조선신문 《한겨레》 3월 24일부에 의하면 피뢰당국이 공무원로조말살을 위한 전면적인 폭압조치를 취하였다.

파쑈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로조가 지난 3월 20일 결의집회를 강행하자 《행정안전부》는 《법을 위반했다.》느니 뭐니 하며 단체핵심성원 18명을 파면, 해임시킬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던 로조원들도 모두 찾아내여 징계처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공무원로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들에서 로조간판을 제거할뿐아니라 단체의 이름으로 벌리는 시위 등 모든 활동을 불허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에 앞서 지난해 파쑈당국은 초대위원장 량성윤이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것을 문제삼아 《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규정》위반혐의를 들씌워 그를 강제해임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당국의 폭압조치에 항의하여 공무원로조는 단체의 권리인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것은 《정부》의 폭압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피뢰정보원이 3월 22일 농민시인 정설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피뢰정보원은 그가 지난해 출간한 시집에 실린 몇편의 글이 북을 《고무, 찬양》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횡포를 저질렀다.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 파쑈광들은 50여점의 책을 압수하고 그에게 강원지방경찰청에 출두할것을 강요하였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설교는 압수당한 책들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이전 재판과정에 합법적으로 돌려받았거나 서점들에 있는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이 《리적물》딱지를 붙여 걸어갔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선거》를 노린 어리석은 기만행위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들볶아대고있다.

지난해초부터 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인 중소기업들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들에서 실습을 한 대학졸업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던 보수패당은 올해에는 청년층일자리예산을 지난해보다 늘이고 이것을 올해 상반기안에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부산을 피우고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련이은 《실업대책》으로 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였다.》고 광고하고있다. 이것은 《실업대란》에 직면한 남조선의 현실을 가리우고 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혀보려는 한갖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청년실업문제해결》은 남조선보수패당의 집권《공약》중의 하나이다.

보수집권세력은 2007년 《대통령선거》당시 년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들어 청년층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청년실업문제는 외면하고 일자리마련목표를 2008년 3월에는 35만개로, 2008년 6월에는 20만개로 축소해버렸다. 집권《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보수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반역패당은 2009년 2월에는 일자리목표를 《20만개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만 급급하였다. 사실상 피뢰당국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고사하고 그에 대한 의사조차 없었다.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는 말그대로 《선거용》이였다. 보수패당은 청년실업문제해결 등을 《공약》하며 집권하였지만 사회적약자들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기구들을 저들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추진에 제동을 걸수 있다고 보고 《효률성》이 낮다는 구실로 폐지하거나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 사실만으로도 보수패당에게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수패당이 생색을 내며 청년실업문제해결에 극성을 부리고있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올해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지지표를 한표라도 더 긁어냄으로써 이번 《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날로 심각해지는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것이다.

보수패당이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때에 《덕》을 본 《청년실업문제해결》이라는 미끼를 다시 써먹으려고 작정한것 같은데 그것으로 청년들의 민심을 낚기는 코집이 글렀다.

지금은 사정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선거공약》들을 하늘로 날려보내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인민적통치만을 일삼는 남조선당국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당시 보수패당에게 기만우롱당한 청년들의 분노는 반역패당에 대해 반기를 드는것으로 이어지고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10월 36.7%, 34.5%였던 보수패당에 대한 20대, 30대 지지률이 11월에는 각각 16.2%, 19.8%로 내려갔다. 그것이 지금은 아예 바닥을 헤매고있다. 이것은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둔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붉은 신호등》이 아닐수 없다. 이에 바빠난 반역패당은 지금처럼 가다가는 올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패하여 돌이킬수 없는 통치위기에 직면할수 있다고 보면서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타산으로 청년실업문제해결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보수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노리고 청년실업문제해결을 떠들며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이미 때는 늦었다.

《실용정부》가 출현한 이후 극소수 재벌들만을 위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인 통치로 하여 실업자대군이 쏟아져나오면서 남조선에서는 《실업대란》, 《취업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직업소개소마다 실업자들로 차넘치고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무리지어 거리를 헤매이고있다. 그럼에도 남조선집권세력은 《실용》의 간판밑에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법》개악책동 등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강탈하였다. 그리하여 《실용정권》하에서 청년실업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문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얼마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400만명으로서 2000년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그중 청년실업자수만도 74만 8 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 악화되고있는 청년실업사태의 영향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한 50만여명에 달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의 처지에 대한 비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리혼과 자살, 사기협잡 등 범죄의 길에 서슴없이 들어서고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86%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 전례없이 많이 발생하고있는것은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불만이 커졌기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남조선의 경제파국이 빚어낸것이 아니라 온갖 사기협잡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들볶아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속이 빤드름히 들여다보이는 사기협잡행위가 아닐수 없다.

같은 거짓말에 두번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보수집권세력이 청년들을 《선거》때 지지표나 긁어내는 대상으로, 사기협잡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속타산이다.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반인민적통치만을 일삼는 《실용정부》의 범죄적정체는 이미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청년들은 보수패당의 어리석은 기만행위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며 6월의 《선거》를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송영석

철군법안기각을 통해 본 미국의 모산

얼마전 미국의 민주당소속 국회 하원 의원 쿠씨니츠가 하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늦어서 올해중에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머물러있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국회 하원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말았다. 하원이 이 법안을 기각하였던것이다. 하원의 한 원내총무는 《바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지도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것은 실책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법안이 미국회 하원에서 기각당한것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그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평정작전》의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무력증파에 기초한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에 따라 《탈리반소탕작전》을 강화하면 조만간에 이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권확장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평정작전》이 《성공》하기 전에 철군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 철군바람을 일구고있는 동맹국들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여 미국의 체면이 심히 깎이고 《반테로전》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는것도 념두에 두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저들의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이 실행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철군조치를 취하는것은 시기상조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비게덩이를 손쉽게 먹어보려 하다가 목에 걸려 고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일을 성사시켜보려고 모지름을 쓰는 미국의 심리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에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얼마전 이란대통령은 《우리는 군대주둔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해마다 아프가니스탄주둔 외국군대에 지출되는 비용이 1 000억US$에 달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 200억US$만 제공해도 이 나라가 재건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하다면 미국이 왜 막대한 전쟁비용을 소비하는 등 엄청난 재정, 물질적 및 인적손실을 보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전략적발판, 거점의 하나로 리용하여 주요자원지대이며 군사전략적요충지인 중동과 중앙아시아, 까스삐해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 한껏 들떠있기때문이다.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자기를 다잡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지배주의야망에 사로잡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착오가 미국을 어느 길로 떠밀게 되리라는것은 뻔하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상급연구원 밴도우는 《우리가 허용할수 없는 전쟁》이라는 글에서 2009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 510억US$의 돈을 쏟아부었다,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을 1 000명 더 늘이는데는 숱한 자금이 든다고 하면서 계속되는 이라크강점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확대가 미국의 파멸을 다그치게 하는 주요촉진제로 된다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도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군사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피코 미국경제를 파산의 함정에 몰아넣을것이라고 전하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론평원은 자기의 글에서 미국은 예산적자로 하여 계속 빚을 걸머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미국이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론들이 평하듯이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국가채무,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침략과 전쟁에 환장하여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있으며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망할수밖에 없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의 처지는 어떠한가. 얼마전 미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전쟁개시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는 926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부상자수는 더 말할것도 없다.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은 《테로분자소탕작전》을 강화한다 어쩐다 하고있지만 실지로는 탈리반세력의 공격으로 언제 객사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그들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마라손전쟁》에 내몰린것을 한탄하며 제 살구멍만 찾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이 제2의 웰남으로 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도이췰란드 사회민주당 지도자는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웰남전쟁때처럼 될수 있다고 하면서 자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철수를 뒤전에 밀어놓으면서 막대한 자금지출과 무력증강으로 한사코 《평정작전》을 《성공》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도리여 자국을 더욱 궁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빨리 손을 떼는것이 상책일것이다.

본사기자 채일출

= 이스라엘의 침략책동 규탄 =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가 3월 27일 제22차 아랍국가련맹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지역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수리아는 그에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2세도 이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을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꾸드스의 지위를 변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레바논대통령 미쉘 쑬레이만은 3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 령토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불법무도한 침범행위를 단죄하였다.

3월 25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동남부지역을 침범하였다가 레바논군의 반격에 의해 쫓겨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결의들을 존중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또한 이스라엘이 동부꾸드스에 있는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대시정책은 중동평화를 이룩하는데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실업자 증대

일본후생로동성은 3월 30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만명 더 늘어나 324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업자수는 련속 16개월째의 증대를 기록하였다 한다.

지 진

인도네시아의 동부지역에서 3월 26일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말루꾸주의 싸움라끼로부터 서북쪽으로 20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편 이날 칠레에서도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싼띠아고로부터 북쪽으로 61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01055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